

생각한 것 아이디어에 올라기.

2004

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 1차 회의

1월 19일 (월) 오후1시

1. 보고 안전

방법: ~~매번~~ 매번 국장이 시무하게끔. 가치제 이제 다음.

1. 단대별 여성 주체 진행 상황 보고

문대: 항상.

성대: 비대위: 10주째.

이라대: 노영진. (여성주 계획).

교과대: 2월말까지 진행.

공대: 여학생이 많아. 꼭 지켜야 함. 2. 3월말에 해야 함.

2. 새터 내규 홍보를 위한 단대별 분위기, 내규에 대한 인식 실사 보고

이과대: 필요성 공감. but 회화화. 부정적 인식 X.

공대: 이과대랑 비슷. 남학생 많아서 힘들. 남학생이 와서 얘기를 하게 좋을 듯.

성대: 이과대랑 비슷. 동의는 하지 않고. 부정적이지도 않음.

교과대: 긍정적. 포스터에 관심 아.

사대: 농담거리 되고 있음. 무시하는 상황 빈번함.

사대: 포스터를 다룬 데 이용.

2. 논의 안전

1. 새터 내규 홍보 방식- 포스터 / 자료집 혹은 소책자 만화.

메모장은 별로 의미가 없었던 듯. → 사람들이 다 보는 것도 문제.

새터 꼭꼭작업. - 자매나. 의견감.

2. 예산- 단대별 분담 혹은 특별공동예산? 인조.

3. 영상 → 한해 영상 제작 동아리.

이라대.

포스터 가시성 크게. 꼭 자료를 넣을 필요가 있나? 반기 등기.

비복잡한 것 → 회화화 되는 것 가능.

- 제목 자료를 크게: 눈에 잘 들어오게.

-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함. 강조할 것은 강조하여.

↳ 공대. 문대.

★ 문대회장 : 연성뿐만이 아니라 새터내규 교양과 홍보와 관련하여 더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각 단대별로 새터내규에 대한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. 각 과반학생회 별로 새터내규에 대한 분위기가 어떤지 이야기해 봅시다.

★ 6반 : 새터내규에 대해 논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. 포스터를 붙여도 이것에 신경쓰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선을 지키고 조심하려고 합니다.

★ 10반 : 내규가 있는 것 자체로 인하여 주의를 기울이긴 하지만, 자세하게 읽어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. 회화화되는 경우도 있구요.

★ 1반 : 저희반도 신경을 안쓰거나 회화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규칙이 자리잡으려면, 최소한 반 안에서도 논의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. 그저 종이 1장으로만 여겨지지 않으려면 문과대 전체에서 학우들과 반성폭력에 대해 환기시킬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
★ 문대회장 : 이것과 관련하여 성폭력 상담실에 게시는 선생님께서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각 단대에서 요청하면 20분 30분 정도의 짧은 강연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문과대 행사할 때 그 순서를 넣을 것에 대해 고려하고 있습니다.

★ 5반 : 내규라는 것이 새내기보다 선배를 대상으로 교양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사례만 봐도 대부분 가해자가 선배인데, 선배들이 그런 잘못된 행동을 못하도록 교양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새터 뿐만이 아니라, 신입생 환영회나 오티 때에도 반성폭력에 대한 교양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.

★ 4반 : 저희반은 좀 심하게 말해서 반성폭력의 불모지라고 이야기할 수 도 있을 것 같은데요, 회화화 문제도 심각하고 심지어 내규약수라는 것도 있습니다. 새터 때만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, 일상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자치규약 같은 것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
★ 3반 : 고대와의 과교류때 고대 선배들이 낯은 것을 시키는데 FM이 대표적인 예입니다. 저희 반은 일부러 FM을 하지 않는데, 그 때 새내기들이 FM 재미있는데 왜 안하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새내기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 이야기들을 잘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선배먼저 교양을 많이 하고, 새내기들한테도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또한 가르친다기보다 함께 얘기해 보고 스스로 알아 갈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

★ 4반 : 작년에 반에서 FM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, 소속감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오히려 FM에서 “이번 판은 나가립니다~~” 라는 노래가 폭력적인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.

★ 3반 : FM을 대체할 수 있는 자기소개연구가 이뤄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

★ 5반 : 각 과반에서 작년평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.

★ 9반 : 저는 포스터만 2년 동안 붙여봤는데, 그 때마다 ‘ 한번 씩 쪽 읽어보고, 서로 잘 조심해서 하자’라고 이야기합니다. 제 생각에는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일종의 상징인 것 같습니다. 어느 정도 회화화되더라도, 반성폭력에 대해 인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조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동영상 같은 것을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교양도 중요하지만, 오히려 ‘일상생활에서도 반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’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마음에 와 닿지 않나 생각합니다.

★ 3반 : 영상물은 고려해야 하는 것이, 선배들은 재미있게 고민하면서 볼수 있는 것이지만 대학문화를 잘 모르는 새내기들에게는 영상물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.

★ 4반 : 교양이나 세미나와 함께 영상물도 함께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

★ 8반 : 저희 반은 회화화같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. 포스터를 붙여도 잘 보지 않는 편인데, 상식선에서 알아서 잘 해결하는 분위기입니다.

★ 7반 : 포스터에 별로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. 그래도 포스터가 붙어 있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. 오히려 그런 포스터조차 없는 오티 때 더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작년의 경우 새내기들이 집에 일찍 가고 선배들만 남았을 때 선배들끼리 오가는 이야기가 성폭력적인 것이 많았습니다.

★ 문대회장 : 네, 각 반마다 분위기가 어떤지 잘 이야기 들었고, 연성뿐만이 아니라 새터내규 교양과 홍보에 대해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논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각 과반학생회별로 반성폭력에 대한 교양이나 세미나가 필요하신 단위는 총여학생회에 요청하시면 도움을 주신다고 합니다.